
모성자존감 측정도구의 검증

한경자* · 방경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모성 자존감은 자녀돌보기(mothering)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모성자존감(self-esteem)의 개념은 연구자들이 흔히 모성자신감 (self-confidence)이나 모성자아개념(self-concept)과 혼용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혼돈이 더욱 초래되어 왔다. 이러한 혼돈은 모성자존감과 관련구성요소를 이해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아개념이란 개인이 자신의 포괄적인 본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인간의 총체성(totality)을 나타낸다. 반면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하는 능력: 즉 자기 평가에 관련되는 초기 인지과정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자존감은 인지평가 과정일뿐 아니라 자기 평가에 따라 자부심, 수치와 같은 정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기초로 하여, 모성자존감은 여성이 스스로를 어머니로서 돌아봤을 때 자기평가에 의한 가치로서 고찰된다. 어머니라는 특수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자가평가는 긍정적인 일반적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Arnold, 1980 cited in McGrath & Meyer, 1992). 어머니의 자존감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발달되는 어머니로서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모아관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maternicity)과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함에 따라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어머니 역할 수행 능력은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다. 그러나 교육과 간접경험의 부족으로 학습의 기회가 없는 현대 사회의 어머니들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경자, 1997; 조결자 등, 1997).

모성자신(maternal self)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모성자체, 자신감 및 자존감에 대한 종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

의 연구들은 영아의 특성과 관련된 모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박영숙, 1991; 이해경, 1992; 김혜원, 1996)된 어머니역할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모성체감은 모성역할 획득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모성자존감(maternal self-esteem)은 어머니 되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아직 이에 대한 개념정의나 이러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모성자존감은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영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보내는 영아에게 있어 어머니의 감정이나 태도는 모아상호작용이나 자녀의 돌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Mercer, 1990; Bromwich, 1990; Christensen 등, 1994). 따라서, 어머니의 자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적응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아에 대한 어머니 행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영아의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성자존감은 어머니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있지만(Christensen 등, 1994; Shapiro 등, 1994; Garcia & Coll, 1994), 반면 모성자존감이 낮을 때에는 자녀부당취급 및 자녀학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역할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성자존감을 고취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다(Christensen 등, 1994). 그러나 모성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가 명확해야 하며 다른 관련 구성요소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모성자존감은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소개되지 못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는 Shea & Tronick(1988)이 그들의 연구에서 모성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는 임상적 사정도구로서 개발한 모성자가보고 도구(The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를 번역하고 사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용어 정의

1) 모성자존감

모성자존감이란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Shea & Tronick (1988)이 개발한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를 번역한 것으로 영아돌보기 능력 6문항,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8문항, 영아에 대한 수용 3문항, 영아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 3문항,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느낌 4문항 등 5개 영역에 대한 26문항의 축약형 설문지에 응답한 자존감 정도를 말하며, 득점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자존감은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특정상황에 해당되는 특수한 것일 수도 있다. 반면 모성자존감(maternal self esteem)이란 어머니 되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공적인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나타내 주는 원동력이며,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ercer, 1990; Bromwich, 1990). 모성자존감은 모성역할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효과를 잠재적으로 가져온다. 영아건강, 영아건강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신생아의 행동,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것이 제시된 바 있다(McGrath, 1988).

이러한 모성 자존감의 측정에 관하여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여 모성자존감에 대한 특수한 정보를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광범위한 측정도구의 특이성과 실용성에 의문을 갖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들도 일치되지 않고 있다(Zahr, 1991).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모성 자존감의 특징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모성 자가 보고 목록(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Shea & Tronick, 1988)은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Shea와 Tronick(1988)은 문헌고찰을 통해 모성자존감의 구성요소로서 아기를 돌보는 능력,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아기에 대한 수용, 아기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느낌, 부모의 영향, 그리고 신체상과 분만후의 건강 등 7가지 영역을 추출하여 100문항의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그중 아기를 돌보는 능력, 어머니로서의 일반적 능력, 아기에 대한 수용, 아기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느낌의 5가지 영역에 대하여 26문항의 축약형을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Goldberg(1977)는 모성자존감과 영아의 특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려 하면서, 부모로서의 자기효능감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 자신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모성자존감은 영아의 상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영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도 특히 영아의 건강상태와 영아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Shea와 Tronick(1988)은 이보다 더 포괄적으로 모성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영아와 산모의 건강, 영아의 성별, 인구사회학적 요인, 출생후의 모아분리, 분만 형태, 사회적지지, 기타 다른 환경적 요인 등을 들었다.

McGrath(1988)는 만삭아와 조산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기 동안의 모성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는데 영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까다로운 영아의 기질, Brazelton 신생아 사정도구로 사정한 영아의 자율신경계 행동이 전체 대상자 모

성자존감의 48%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만삭아 어머니의 모성자존감은 영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까다로운 영아의 기질에 의해 25%가 설명되었으며, 조산아 어머니의 경우는 Brazelton 신생아 사정도구에 의하여 사정한 영아의 의식 상태, 까다로운 영아의 기질, 영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은 모성자존감의 22%를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지에서는 남편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모성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Shea와 Tronick(1988)의 도구를 사용하였던 McGrath, Boukydis와 Lester(1993)의 연구에서도 객관적인 영아의 건강상태 뿐 아니라 영아의 건강과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지각이 모성자존감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Mercer와 Ferketich(1995)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동안 초산모와 경산모의 어머니로서의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roy(1995)는 분만 후 처음 아기를 안아보는 시기가 모성자존감과 애착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아기를 안아보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애착 감정은 높았으나 모성자존감과 모성애착의 형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Lincoln(1990)은 산후우울증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산모는 아기의 기질에 대한 지각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120명의 영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산후 우울과 영아 기질에 대한 지각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성자존감이 낮을수록 영아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성자존감과 아동 부당취급 및 학대의 관련성을 연구한 Christensen 등(1994)의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이나 학대를 보이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전반적인 자존감이나 가정에서의 자신의 가치 등에 있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어머니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10대부모를 대상으로 한 Porter와 Sobong(1990)의 연구에서는 모성자존감이 높을수록 신생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증진 교육을 시행한 중재군은 대조군보다 시간경과에 따라 모성자존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Meyer 등(1994)의 연구에서도 개별적인 중재를 시행한 중재군 어머니들은 대조군보다 자존감이 높았으며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도 더 많이 보이고 아기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과정

1998년 5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S대학교병원 소아과 외래에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118명의 영아어머니와 1998년 12월 13일부터 1999년 1월7일까지 분만을 위해 산과병동에 입원한 36명의 산모로서 총 154명의 대상자를 임의표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문항수의 4-5배 정도가 바람직하며 최소한 100이상이 이상적이므로(이우옥, 임난영, 박현애, 1998), 연구대상자의 수는 적절한 것으로 본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나이, 직업, 교육정도, 가족형태, 분만형태, 그리고 영아의 월령, 성별, 출생순위, 수유방법, 입원경험 유무 등에 따라 모성자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는 연구자가 개발한 일반자료 수집 도구를 사용하였다.

2) 모성자존감

Shea & Tronick (1984)이 개발한 모성자가보고도구(Maternal self-report inventory)는 모성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및 임상적 연구도구로서 어머니의 영아돌보기 능력, 엄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수용, 영아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감정, 부모로서의 수용성, 출산이후의 신체상과 건강 등 7개 영역의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의 적용결과 득점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중 영아돌보기 능력 6문항, 엄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8문항, 영아에 대한 수용 3문항, 영아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 3문항,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느낌 4문항의 5개 영역에 대한 26문항의 축약형이 저자에 의해 개발되어 있으며, 개발당시 각 영역의 Cronbach's alpha는 .66 -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6문항의 축약형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절대적으로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성자존감 도구를 우리말로 번역한 후 간호학 교수 2인이 문항을 수정하여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8.0으로 컴퓨터 처리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산과적 변수는 빈도와 비율을, 관련변수간의 검증은 t-test 및 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와 Guttman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과 영역별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등 서술통계로 보았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65명이었으나 무응답이 있는 경우, 모두 같은 점수에 표시하여 답변의 불성실성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154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0.18세(SD 3.06)였으며, 범위는 21세에서 40세까지였고 30세 이상이 84명(54.5%), 30세 미만은 70명(45.5%)이었다. 직업이 없는 경우(99명, 64.3%)가 있는 경우(55명, 35.7%)보다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중졸 4명, 고졸 47명, 대졸이상이 103명으로 대부분이 고졸이상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59명(38.3%)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순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1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이외에 시부모나 친정부모, 또는 형제 등 다른 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가 모두 합해 44명이었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99명(64.3%)으로 세왕절개(55명, 35.7%)를 시행한 경우보다 많았다. 수유형태는 모유수유만 하는 경우(31명)보다는 인공수유(61명)나 혼합수유(61명)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영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아의 평균 월령은 3.94개월(SD 6.92)이었으며, 범위는 출생 후 1일부터 41개월까지였다. 성별은 남아가 70명(45.5%)으로 여아 84명(54.5%)보다 약간 적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105명(68.2%)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둘째가 45명, 셋째 이상이 3명이었다 (표 1 참조).

〈 표 1 〉 대상자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N=154

특 성	실 수	백분율(%)
어머니 연령	30세이상	84 54.5
	30세미만	70 45.5
어머니 직업	유	55 35.7
	무	99 64.3
교육정도	중졸	4 2.5
	고졸	47 30.5
	대졸이상	103 66.9
종교	무	59 38.3
	기독교	42 27.3
	불교	29 18.8
	천주교	22 14.3
	기타	2 1.3
가족형태	핵가족	110 71.4
	기타	44 28.6
분만형태	자연분만	99 64.3
	제왕절개	55 35.7
수유형태	모유수유	31 20.1
	인공수유	61 39.6
	혼합수유	61 39.6
	무응답	1 0.6
아기성별	남	70 45.5
	여	84 54.5
출생순위	첫째	105 68.2
	둘째	45 29.2
	셋째이상	3 1.9
	무응답	1 0.6

2.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모성자존감 도구의 타당도 검증은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 타당도를 보았으며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1) 구성타당도

구성타당도 검증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6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Eigen value 1.0이상의 요인이 8개 추출되었다. 8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65.67%였다. 이를 Varimax Rotation하여 얻은 요인중 요인 7, 8은 문항 수가 각각 1개였고, 요인 5, 6은 같은 영역의 문항이 각각 2개씩으로 나누어져 있어 요인 수를 본래의 도구대로 5로 지정하여 다시 Varimax Rotated Componen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요인분류의 결과는 본래의 도구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영아 돌보기 능력 6문항과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감정 4문항은 본래의 도구와 일치하였으나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영아에 대한 수용, 영아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는 서로 혼합되어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이 세가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분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제로 아기를 낳았을 때보다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기쁨을 주었다'의 문항은 문항-전체 상관관계가 0.03으로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았으며, 요인부하치도 0.11로 낮고 요인분석의 해석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문항을 제거하였다.

요인회전을 실시한 후 5개 요인에 의한 설명변량은 52.83%였으며, 각각의 요인 적재량은 0.40~0.78의 적재량을 나타내어 Nunnally(1994)의 기준인 0.4이상의 유의성을 보였다. 요인분류 결과 요인 1에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도치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 요인 3은 아기를 돌보기 능력, 요인 4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 요인 5는 임신, 분만에 대한 감정으로 분류되었다.

〈 표 2 〉 모성자존감에 대한 문항분석 및 요인분석

문항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공유치
	1	2	3	4	5	
• 나는 내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할지 의심스럽다. (*)	.783					.436
•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 대로 내 아기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	.767					.646
• 엄마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우울하게 된다 (*)	.725					.571
• 나는 내 아기가 나와 같을까봐 걱정이다. (*)	.716					.403
• 나는 내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할지 걱정스럽다. (*)	.697					.430
• 나는 나의 아기가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669					.452
• 나는 나의 아기에겐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능력에 자신이 있다.	.755					.504
• 나는 내 아기가 튼튼하고 건강할 것이라 확신한다.	.726					.458
• 나는 나의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느낀다.	.711					.563
• 나는 내 아기가 배우야 할 많은 것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703					.484
• 나는 내 아기가 나를 매우 사랑할 것으로 확신한다.	.562					.470
• 나의 아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나에게서 어려운 일이다. (*)			.726			.283
• 나는 내 아기를 다룰 때 서투르고 어색할까봐 걱정스럽다. (*)			.723			.230
• 나는 아기가 이쁠 때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를까봐 걱정이다. (*)			.644			.312
• 나는 내 아기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다. (*)			.510			.258
• 나는 내 아기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 (*)			.492			.444
• 나는 내가 아기 돌보기 중 어떤 것을 자주 잊어버려서 아기에겐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			.401			.382
• 나는 좋은 엄마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699		.343
• 나는 아기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가지리라 확신한다.				.656		.305
• 나는 나의 아기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리라 확신한다.				.613		.410
• 나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다				.588		.211
• 분만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768	.465
• 나는 진통과 분만의 전 경험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경험의 하나였음을 깨달았다.					.686	.334
• 진통과 분만에 대한 경험은 내가 겪었던 가장 불쾌한 경험중의 하나였음을 깨달았다. (*)					.640	.511
• 나는 분만 경험이 두렵고 매우 불쾌한 것임을 발견했다. (*)					.574	.617
eigen value	3.98	2.99	2.53	2.18	2.06	
percentage of variance explained	15.30	11.50	9.71	8.38	7.94	
cumulative percentage	15.30	26.80	36.51	44.89	52.83	

2) 각 영역별 상관성 검증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요인 I과 III, V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요인 II는 요인 IV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각 요인과 전체점수와의 $r = .465$ 에서 .801 사이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영역이 일관성있게 모성자존감이라는 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표 3 〉 상관성 검증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전체
요인 II	.185*					
요인 III	.459**	.065				
요인 IV	.146	.471**	.105			
요인 V	.297**	.121	.205*	.206*		
전체	.801**	.465**	.672**	.468**	.574**	1.00

* $p < .05$. ** $p < .01$

3) 도구의 신뢰도 검증

도구의 26개 항목 전체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검사하는 Cronbach's α 는 .824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아주 낮은 0.1미만의 문항이 1개 있었으며, 이를 제외하여 α 값은 .8321이 되었다. 각 요인별 alpha값은 〈 표 4 〉와 같이 .6314~.8480이었다. 또한 반분법에 의한 Guttman 신뢰도 계수는 .7521이었다.

〈 표 4 〉 전체 및 영역별 내적일관성 계수

항 목 (문항수)	Cronbach's α	Guttman 신뢰도 계수
전 체 (25문항)	.8321	.7521
I.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6문항)	.8480	.8660
II.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5문항)	.8012	.6928
III. 아기돌보기 능력 (6문항)	.7233	.6583
IV. 어머니역할에 대한 준비도 (4문항)	.6314	.4891
V. 임신, 분만, 출산에 대한 감정 (4문항)	.6652	.4430

3. 모성자존감 측정

1) 영역별 모성자존감

모성자존감 점수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각 요인별 영역의 문항평균은 모두 3.0이상이었으며, 가장 자존감이 높은 영역은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4.10이었고, 가장 자존감이 낮은 영역은 영아돌보기 능력과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느낌의 순으로 각각 3.00과 3.35로 나타났다.

총점 13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89.92(SD 13.48)였으며, 최저 44점에서 최고 126점까지로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모성자존감 점수

항 목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문항평균
I.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6문항)	21.60	6.31	6-30	3.60
II.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5문항)	20.50	3.17	9-25	4.10
III. 아기돌보기 능력 (6문항)	18.02	4.71	6-30	3.00
IV. 어머니역할에 대한 준비도 (4문항)	16.31	2.59	9-20	4.08
V. 임신, 분만, 출산에 대한 감정 (4문항)	13.41	3.85	4-20	3.35
전체 점수	89.92	13.38	44-126	3.60

2) 개별문항별 모성자존감

개별 문항별로 보았을 때 가장 긍정적인 항목은 '나는 내 아기가 나를 매우 사랑할 것으로 확신한다'(4.49), '나는 아기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가지리라 확신한다'(4.45), '나는 좋은 엄마가 되리라고 생각한다'(4.29)의 순이었으며, 부정적인 항목은 '나는 내 아기를 다룰 때 서투르고 어색할까봐 걱정스럽다'(2.82), '나는 아기가 아플 때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를까봐 걱정이다'(2.90), '나는 내 아기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다'(2.98) 등으로 영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 표 6 〉 모성자존감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 항 내 용	평 균	표준편차
1. 진통과 분만에 대한 경험은 내가 겪었던 가장 불쾌한 경험중의 하나였음을 깨달았다.(*)	3.34	1.39
2. 나는 좋은 엄마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4.29	.70
3. 나는 아기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가지리라 확신한다.	4.45	.78
4. 나는 나의 아기가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3.68	1.48
5. 나는 내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할지 의심스럽다.(*)	3.71	1.38
6. 나는 분만 경험이 두렵고 매우 불쾌한 것임을 발견했다.(*)	3.33	1.39
7. 나는 내가 아기 돌보기 중 어떤 것을 자주 잊어버려서 아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	3.25	1.30
8. 나는 나의 아기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3.95	.90
9. 나는 내 아기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다.(*)	2.99	1.22
10. 나는 내 아기가 나와 같을까봐 걱정이다.(*)	3.42	1.30
11. 나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다	3.60	1.28
12. 분만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24	1.35
13. 나는 내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지 걱정스럽다.(*)	3.51	1.40
14. 내가 아기를 사랑하는대로 내 아기도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3.71	1.43
15. 엄마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우울하게 된다.(*)	3.57	1.39
16. 나는 아기가 아플 때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를까봐 걱정이다.(*)	2.90	1.22
17. 나의 아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나에게서 어려운 일이다.(*)	3.04	1.19
18. 나는 진통과 분만의 전 경험이 내 일생에 있어 가장 좋은 경험의 하나였음을 깨달았다	3.50	1.32
19. 나는 내 아기를 다룰 때 서투르고 어색할까봐 걱정스럽다.(*)	2.82	1.17
20. 나는 나의 아기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능력에 자신이 있다.	3.76	.90
21. 나는 내 아기가 튼튼하고 건강할 것이라 확신한다.	4.16	.94
22. 나는 나의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느낀다.	4.13	.86
23. 나는 내 아기가 배워야 할 많은 것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알고있다.	3.97	.84
24. 나는 내 아기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	3.02	1.16
25. 나는 내 아기가 나를 매우 사랑할 것으로 확신한다.	4.49	.70

(*) 도치문항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자존감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종교, 직업유무, 가족형태 등 일반적 특성과 분만형태, 수유형태 등의 산과적 특성, 그리고 아기의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모성자존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으나, 어느 것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5가지 영역별 점수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

〈 표 7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모성자존감의 차이

특 성	실수	평균±표준편차	t 또는 F값	p값	
어머니 연령	30세미만	70	90.16±12.32	.204	.839
	30세이상	84	89.71±14.27		
어머니 직업	유	55	88.76±13.42	-.795	.428
	무	99	90.56±13.38		
교육정도	고졸이하	51	91.10±12.89	.771	.442
	대졸이상	103	89.33±13.64		
종교	무	59	88.14±15.42	.959	.432
	기독교	42	89.14±9.96		
	불교	29	93.48±15.50		
	천주교	22	90.86±9.95		
	기타	2	96.50±6.36		
가족형태	핵가족	110	90.94±13.88	1.503	.135
	기타	44	87.36±11.81		
분만형태	자연분만	99	89.99±14.16	.092	.927
	제왕절개	55	89.78±11.99		
수유형태	모유수유	31	95.19±10.92	.717	.490
	인공수유	61	91.89±14.58		
	혼합수유	62	92.00±13.57		
아기성별	남	70	89.19±13.40	-.617	.538
	여	84	90.52±13.42		
출생순위	첫째	105	89.90±13.80	.839	.434
	둘째	46	89.33±12.70		
	셋째	3	99.67±4.73		

V. 논 의

본 연구에서 소개한 모성자가보고 도구는 영아 어머니의 모성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의 도구에서는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항-전체 상관관계가 매우 낮고 요인분류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1개 문항을 제외한 총 25문항의 도구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25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값이 .8321이었으며, 영역별로는 .6314에서 .8480사이로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66에서 .8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분법에 의한 Guttman 신뢰도 계수도 .7521로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모성자존감의 문항이 전반적으로 이질적인 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내적 상관성이 높아 연구 대상자의 반응을 일관성 있게 얻을 수 있는 도구임을 의미한다. 산모의 모성자존감 측정에 Rosenberg(1973)의 자아존중감 도구를 사용한 타 연구(배정미, 1995)에서는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 alpha가 .9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는 있으나 그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모성역할긴장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의 측정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Zahr(1991)도 모성자존감의 측정에 전반적인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이성과 실용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성자존감 측정에 있어서는 Rosengerg(1973)의 전반적인 자존감 도구보다는 모성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도구 개발인 Shea와 Tronick(1988)의 제시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요인분류의 결과, 영아 돌보기 능력 6문항과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감정 4문항은 본래의 도구와 일치하였으나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영아에 대한 수용, 영아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는 서로 혼합되어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구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개 요인에 의한 모성자존감의 설명변량은 52.83%였다. 요인에 의한 5개 하부 영역과 전체점수와의 상관계수는 .465에서 .801사이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동질하게 모성자존감이라는 한 개념을 측정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Shea와 Tronick(1988)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모성자존감의 비교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정도, 분만형태, 출생순위, 영아성별 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았으나 이러한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으며, 특히 문화와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여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앞으로 본 도구와 함께 만삭아와 조산아 어머니의 비교, 혹은 어머니의 영아 건강 상태에 대한 지각, 영아 행동 등의 변수에 따른 차이 유무를 규명해 봄으로써 모성자존감 도

구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한 모성자존감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우리나라 산모를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속연구를 통해 요인별 개념의 명확화와 정상모성집단과 특수모성집단의 모성자존감의 차이 유무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성자존감 자가보고 측정도구로 측정한 우리나라 산모들의 모성자존감 정도는 5점 만점에 각 요인별 영역의 문항평균은 모두 3.0이상이었으며, 가장 자존감이 높은 영역은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4.10이었고, 가장 자존감이 낮은 영역은 영아돌보기 능력과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감정의 순으로 각각 3.00과 3.35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별로 보았을 때 가장 긍정적인 항목은 '나는 내 아기가 나를 매우 사랑할 것으로 확신한다'(4.49), '나는 아기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가지리라 확신한다'(4.45), '나는 좋은 엄마가 되리라고 생각한다'(4.29)의 순이었으며, 부정적인 항목은 '나는 내 아기를 다룰 때 서투르고 어색할까 봐 걱정스럽다'(2.82), '나는 아기가 아플 때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를까봐 걱정이다'(2.90), '나는 내 아기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다'(2.98) 등으로 영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마음가짐(maternicity)은 준비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아기 돌보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성자존감 증진을 위해서는 출산 전부터 또는 산모를 대상으로 아기돌보기에 대한 교육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자존감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또한 모아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아동학대나 방임의 잠재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출산 후 산모의 모성자존감 측정과 그에 따른 위협집단의 발견, 그리고 출산 후 영아의 어머니에 대하여 모성자존감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모성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a와 Tronick(1988)의 모성자가보고 도구를 번안하여 소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며, 우리나라 영아어머니의 모성자존감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산모와 영아어머니로 총

154명이었다.

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보기 위한 요인분석에서는 고유값 1이상의 요인수와 도구 개발자가 제시한 요인 수를 고려하여 5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적합하지 않은 1개 문항이 제외되어 총 25개의 문항이 되었다. 5개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52.38%였으며,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 어머니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 아기돌보기 능력,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 임신·분만에 대한 감정으로 명명하였다. 특성별 비교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유무, 종교, 분만형태, 산과력에 따른 모성자존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삭아와 미숙아 어머니의 비교 등 보다 확실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본다면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26문항 전체에 대한 alpha값이 .82였으며, 한 문항을 제외한 25문항에 대한 Cronbach alpha 값은 .83이었고 반분법에 의한 Guttman 신뢰도 계수는 .75였다. 각 영역별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63~.84이었다. 영역 상호간의 상관계수는 .065~.797로 전체 점수 외에도 영역별 점수로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모성자가보고 도구는 우리나라의 산모와 영아모를 대상으로 모성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적합한 도구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모성자존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모성자존감을 측정하여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모성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혜원 (1996). 초임부의 모성정체성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영숙 (1991).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지환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정이 (1996). 산후우울의 이론적 모형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혜경 (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활 획득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결자, 정 연, 이군자 (1997). 저체중출생아 어머니와 정상신생아 어머니의 간호교육요구도 조사. 아동간호학회지, 3(1), 5-18.

-
- 한경자 (1997).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봄의 부담감과지지, 교육 및 상담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228-240.
- Arnold, D. (1980). The adolescent mother: A comparison of her self-concept and her perceived mothering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exas Woman's University, Denton, TX.
- Bromwich, R. M. (1990). The interaction approach to early interven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1(1), 66-79.
- Christensen, M. J., Brayden, R. M., Dietrich, M. S., McLaughlin, F. J., Sherrod, K. B., & Altemeier, W. A. (1994). The prospective assessment of self-concept in neglectful and physically abusive low income mothers. Child Abuse and Neglect, 18(3), 225-231.
- Lincoln, P. P.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mother's perception of infant temperament.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McGrath, M. M. (1988). The determinant of maternal self esteem in the neonatal perio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McGrath, M. M., Boukydis, C. F. Z., & Lester, B. M. (1993). Determinants of Maternal Self-Esteem in the Neonatal Period.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4(1), 35-48.
- McGrath, M. M. & Meyer, E. C. (1992). Maternal self-esteem: From theory to clinical practice in a special care nursery. CHC, 21(4), 199-205.
- Mercer, R. T. & Ferketich, S. L. (1995).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mother's maternal competence during infanc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8(4), 333-343.
- Meyer, E. C., Coll, C. T. G., Lester, B. M., Boukydis, Z., McDonough, S. M., & Oh, W. (1994). Family-based intervention improves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eeding interaction of preterm infants. Pediatrics, 93(2), 241-246.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Inc.
- Porter, L. S., & Sobong, L. C. (1990). Differences in maternal perception of the newborn among adolescents. Pediatric Nursing, 16(1), 101-104.
- Rosenberg, M. (1973).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16, 829-860.

- Shea, E., & Tronick, E. Z. (1988). The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A Research and Clinical Instrument for Assessing Maternal Self-Esteem. In H. E. Fitzgerald, B. Lester, & M. W. Yogman (Eds.),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Vol. 4).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roy, N. W. (1995). The time of first holding of the infant and maternal self-esteem related to feelings of maternal attachment. *Women & Health*, *22*(3), 59-72.
- Wells, L. E., & Marwell, G. (1976).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Beverly Hills: Sage.
- Zahr, L.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onfidence and mother-infant behaviors in premature infant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4*, 179-286.

-Abstract-

Confirmatory Analysis of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Maternal Self-Esteem)

Han, Kyung Ja* · Bang, Kyung Soo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that was developed by Shea and Tronick for measuring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ternal self esteem . The subjects were 154 mothers.

The construct validity for the scale was tested by factor analysis with five factor loading solut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y. One item was excluded because total-item correlation was too low, so that the number of total items were twenty-five. the analysis yielded five well defined factors: confidence on the maternal role, general ability of maternal role, caretaking ability, readiness on maternal role, and feeling on the pregnancy and delivery. These five factors explained 52.38% of the variance in the maternal self-esteem. Maternal self-esteem was not affected by maternal age,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religion, delivery type, or parity.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determined with Cronbach's alpha coefficient and Guttman split-half coefficient. Cronbach's alpha was .82, for 26 items, and .83 if one item was deleted. Guttman split-half coefficient was .75. In subscale analysis, Cronbach's alpha was .63~.84. In conclusion,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showed a high degree of validity and reliability, suitable in Korean mothers for measuring maternal self-esteem. In the further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compare the maternal self-esteem between mothers with normal babies and premature babies, for confirming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inventory.